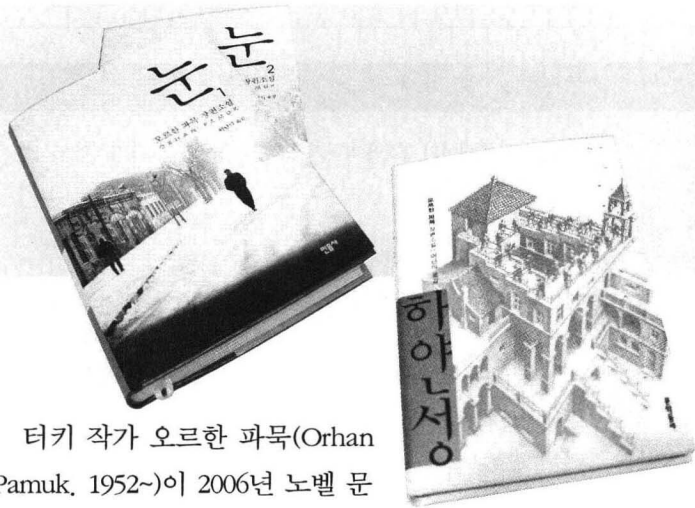


2006년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오직 자신의 인내심으로 독자를 감동시키는 사람’



글_이난아(한국외국어대 터키어과 강사)

터키 작가 오르한 파묵(Orhan Pamuk, 1952~)이 200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그의 전문 번역자로서 또한 그의 문학 연구자로서 커다란 보람이자 영광이다. 독자들은 제3세계, 그것도 이슬람권 출신의 비교적 생소한 작가인 오르한 파묵이 오래전부터 전 세계 문단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아 왔고, 마침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작품의 모티브 중 대부분을 역사에서 구하는데, 그 착상이 매우 기발하고 독창적이다. 또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힘이 탄탄하고, 또한 그것을 엮는 구조가 짜임새 있고 치밀할 뿐 아니라,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를 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매번 새로운 소설을 발표할 때마다 새롭고 실험적인 방식을 채택해왔다. 그렇지만 그 새롭고 실험적인 요소가 그의 소설을 읽고 이해하는 데 방해가 주거나 그다지 난해하지 않게 독자들에게 다가서는 점에서 그의 작가적 역량을 높이 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소설마다 시도하는 그 새롭고 독창적인 구조의 꼭짓점에는 확고한 주제 의식이 자리를 틀고 있는 것 또한 그의 작가적 역량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르한 파묵은 1952년 이스탄불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파묵은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독서에 열중하게 된다. 성

장한 뒤 파묵은 터키 명문 고등학교인 로버트 칼리지를 다녔으며, 아이스탄불 공과대학 건축학과에 입학했으나, 3학년 때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퇴한다. 이후 이스탄불 대학 저널리즘학과에 들어가 졸업했으며, 1974년에 전업 작가를 선언한 후 스스로를 글 쓰는 사람으로 길러나갔다.

파묵은 첫 번째 소설인 《제브뱃 씨와 아들들》로 1979년 터키 밀리엣 신문 소설상을 수상하면서 터키문단에 화려하게 등장한다. 그는 이 소설에서 1905년부터 1970년대의 터키 사회를 해부하면서, 동·서양 대립과 사실주의, 이상주의 삶의 관점을 등장인물들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1983년에 발표한 《고요한 집》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1991년 프랑스에서 ‘유럽 발견상’을 수상했다. 이 소설에서는 1980년대 이전의 유희의 좌익-우익의 갈등, 오스만제국 문화의 바탕에 깔려 있던 합리주의의 양상과 변화하는 가치를 함께 묘사한 터키의 과거와 근대 역사를 구체적인 사실로 서술했으며, 당대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가장 사실주의적인 형식으로 반영되었다.

1985년에 역사소설 《하얀 성》을 발표하면서 그의 명성은 국외적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뉴욕 타임즈 신문이 오르한 파묵에게 “동양에 새벽이 떠올랐다”라고 극찬한 계기가 되었던 이 소설은, 17세기를 배경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인 작중 서술자가 나폴리로 가는 도중 터키인들에 의해 포로로 잡힌 후, 그가 오스만제국 영토에서 보낸 40년간의 이야기를 그의 입을 통해 일인칭

서울문학포럼에 참석한 오르한 파묵과 필자▶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1990년에 발표한 소설 《흑서》는 복잡한 구성 때문에 터키 문학사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일었던 작품이다. 남자 주인공인 ‘갈립’이란 이름의 변호사는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춘 아내 ‘튀야’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이스탄불의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한다. 갈립은 아내의 배다른 오빠이자 신문 칼럼 작가인 ‘제랄’ 역시 행방불명으로 밝혀지자 둘이 함께 사라졌다는 의심을 굳히고, 그의 칼럼들을 살펴보게 된다. 결국 갈립은 제랄의 삶을 산다면 두 사람의 행방을 캐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국 그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옷을 입고 결국은 갈립까지 쓰게 된다.

1994년에 발표한 《새로운 인생》은 터키 문학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로 알려져 있다.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이 바뀌었다’로 시작되는 이 작품으로 인해 그의 문학적 아성은 국내외적으로 확고해졌다.

1998년 12월에는 《내 이름은 빨강》을 발표했는데, 이 소설은 전 세계 32개 국어로 번역되고 세계 우수 문학상을 휩쓸면서, 파묵을 세계적인 작가로서 명실 공히 그 위치를 확고하게 만든 작품이다. 이 책에서는 동·서양 회화의 충돌 및 대립, 보수와 진보, 절대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 공동체와 나 등 상충되는 여러 가지 가치문제들이 예술가의 고뇌 틀 안에서 그려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소설 《눈》(雪)(2002)은 폭설로 길이 차단된 터키의 외딴 국경 도시 카르스에서 현대화를 지향하는 케말주의자들과 보수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간의 충돌, 사흘 만에 막을 내린 국지적인 쿠데타를 커다란 줄기 삼아 전개되고 있다.

파묵은 현재 장편소설 《순수 박물관》을 집필하고 있

다. 당초 이 작품은 올해 말에 출간될 예정이었으나, 작년 파묵이 스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터키가 오스만 제국 말기 아르메니아인, 쿠르드인을 학살했다는 과거사를 언급했다가 국가모독죄로 기소된 후 겪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집필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오르한 파묵의 작품 중에는 동·서양의 문화 충돌과 그 극복 과정을 다룬 작품이 많다. 그의 나라, 터키가 유럽과 아시아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방 문화와 동방 문화가 교통하는 길목에 놓이게 되어, 유사 이래 그의 조국은 양 방향에서 유입되는 문화들로부터 정체성을 찾는 것이 늘 중요한 화두가 되어 왔다. 이 문제는 현재에도 터키에서 늘 토론거리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는 최대의 담론으로 남아 있다. 오르한 파묵은 이러한 중요한 이슈를 자신의 작품에 담아 그 양대 문화의 충돌 유형과 전개 양상, 심지어는 그 결말까지도 보여 줌으로써 독자들에게 그 이해와 아울러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하고 있다.

그는 소설가란 마치 개미와 같은 끈기로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는 사람이며, 마법적이고 몽상적인 상상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자신의 인내심으로 독자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이러한 직업인 정신과 근면성이 그를 현대의 소설가 중 대가의 반열에 자리매김하는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가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은 작가로서의 세계적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영감의 요정’이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집필에의 열정, 그리고 글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매진하는 그 정성에 힘입은 바가 큰 것 같다. ■